할렐루야!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김 용훈 목사님께 문안드립니다.
2022 년 신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, 그리고 인도하심이
섬기시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.

금년도 코로나의 위기가 온 세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일본도 신년을 맞이하면서
급격하게 늘어나는 코로나의 확진자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.

작년 12 월의 중순에 1,400 만명이 사는 동경이 하루 확진자가 7 명인 날도 있었고,
1 억 2 천 650 만명의 일본 전체도 200 명 전후였지만 1 월 22 일 현재 동경이 만명,
일본 전체는 6 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

전문가들은 멀지 않아 일본 전체가 매일 10 만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
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부스타를 맞은 사람은 일본 전체 인구중에 단 몇 %에
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 코로나 확산의 큰 원인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.

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해 왔고
어린이 영어 선교원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.
다만 주중의 성경 공부와 영어 강의는 시간을 줄였지만 잘 진행되어 왔었습니다.

그리고 금년들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쉬고 있었던 주일 오후의 초 중고 학생들의
성경공부(아내가 가르침)와
어른 성경공부(제가 가르침)을 재개할 예정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.

그런데 코로나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일본 정부의 방역 방침도 크게 강화될 수도 있기에
촉각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
하루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정상적인 예배와 일상 생활이 잘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해
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저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장 기간의 긴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 결석자가 좀처럼
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
더욱이 자동차와 전철로 교회까지 1 시간 전후 걸리는 여러 가정이 오랜 기간 교회를 오지
못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.

더 큰 걱정은 정말 더 오랜 기간 교회를 못나오게 되면 후에 복귀하기가 쉬울까? 하는 생각도 듭니다.
이 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또 한가지 저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저희가 영어 어린이 선교원을 시작한지 약 10 년이 되어가지만
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은 금년 가을이 되면 영어 선교원의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것 같습니다.
가장 큰 이유는 일본도 한국과 같은 저출산국입니다. 그리고 코로나도 큰 이유인것 같습니다.

저희도 현재 다니는 아동이 있어서 당장 선교원을 접을 수 있는 상항은 아니지만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.
가끔 일본도 노인분이 더욱 많아지는 나라이기에 노인분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가 놓여있는
여러가지 환경등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

다만 젊은 부인을 중심으로 영어 학원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
저희가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젊은 부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.

부인들은 남편분에 비해서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
결국은 어린이 영어 선교원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.

어떤 일이든 장 단점이 있지만 영어 학원의 형식을 취하면 더 많은 전도 대상자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?
하는 생각도 듭니다. **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**

그리고 **금년의 여름 영어 성경 켐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**
여름 켐프는 저희가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사역입니다.
매년 해외에서 선교팀이 오셔서 함께 무난하게 사역을 진행해 왔었지만
작년과 재작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

금년은 꼭 선교팀이 오셔서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유동적인 상태입니다.
저희는 여름 영어 성경 켐프는 매년 켐프 한해전에 참가할 교회가 정해지고
각 교회가 1-2 월이면 선교 모임을 시작해서 3-4 월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,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서
7 월에는 일본으로 오셔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.

그런데 코로나의 상황이 해외도 일본도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에서 오셔서 사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것 같습니다.
이런 이유로 3-4 월까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할려고 합니다.

가능하다면 금년에는 꼭 해외에서 선교팀이 오셔서 함께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만약 오시지 못하면 저희가 또 자체내에서 준비해서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.

이런 상황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몇 교회가 금년의 여름 영어 성경 켐프를 위해서 문의해 주시고, 또 기회가 되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.
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오셔서 사역을 꼭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드립니다.

작년 부활절에는 3 분이 세례를 받았지만 **금년의 부활절에도 교회의 교인분중에 꼭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도록**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그리고 지난번 기도를 부탁드렸던 H 군이 금년중에 꼭 CAJ 에 입학 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중요한 전도 대상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.

저희들 개인적인 기도 부탁은 아내가 3 월에 5 년 반의 검진을 받습니다.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그리고 차녀 레이처가 대학 수험생이 됩니다.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금년은 무엇보다도 건강하신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

그리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이루어 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 2022 년 1 월 강 민숙 선교사 올림